

특별인터뷰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원장 황 예 언

# “가난한 이웃, 소외된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환자중심의 공공의료 실현해야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황예언 원장이 부임했다.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황예언(55·사진) 원장이 부임했다. 황 원장은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가정의학과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잠음 아산병원 원장과 한-베트남 친선병원장(한국국제협력단 파견의사)을 거쳐 포천병원에 부임했다.

5월20일 가진 취임식에서 황 원장은 “부족하지만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을 경영하면서 도민과 지역주민을 제대로 섬기는 병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 소외된 가족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모두가 애써왔지만 포천병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체감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포천병원이 잘 못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냉철하게 잘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열악한 환경과 여건이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질병치료, 예방, 건강증진 및 공공의료사업 등 무엇이 필요인지, 병원임상현장에서 또는 지역에서 적극 찾아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면 진정한 환자중심의 공공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황 원장은 다섯 가지 중점추진사항을 밝혔다.

첫째, 팀웍이 중요하다. 진료분야, 진료지원분야, 간호분야, 행정분야 또한 직종간, 상하간, 노사간 신뢰를 갖고 균형 감각을 견지하면서 내부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공공병원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포천시와 시의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다양하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내부적인 팀웍과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 (가칭)포천병원 운영지원위원회를 권역별, 전문가별로 구성, 운영하여 경영의 자문과 공개를 하고 사업계획수립도 같이하여 공감대를 얻는 열린 경영을 하고자 한다.

둘째, 공공성 제고 및 공공의료기능의 활성화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정간호, 외국인 근로자 진료, 산모교실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노인난청센터(어르신 소리 찾아주기), 외국인 진료센터설치, 응급의료기능 확대, 산모교실 건강검진, 장애인시설·노인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의료라 할 수 있는 민간이 하지 않는 또한 중점되지 않는 부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시스템을 만들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경영을 다하고자 한다. 공공병원에서 흑자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시설비, 장비비 등을 제외하고 균형된 수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옳은 일이 무엇인가? 일을 옳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경영의 화두가 되고 그런 바탕에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넷째,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할 때 모든 친절과 최고의 서비스가 된다. 어차피 우리의 고객은 무엇인가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여 내원한 것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항상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협담을 하지

말고 칭찬을 하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인사(人事)는 한자로 해석하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그룹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했다. “인사에서 행운이 찾아온다” 인사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인사의 힘을 믿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가슴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한다면 친절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주인으로 내가족, 내형제, 내부모처럼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친절이 해결된다.

다섯째,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물건을 고르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시계와 나침반만 찬 상황이다. 진정한 삶이란 시계보다는 나침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이란 그 사람이 시계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침반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와 같다. 대부분 나침반을 버리고 시계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물질중심시대가 아니라 가치중심시대로 나침반을 버리고 시계만 가지고는 안되는 시대이다. 즉 효율성과 가치와 도덕을 중시는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황 원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서 사랑 받고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병원 일반현황

##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향상과 건강권 보장

포천병원의 경영목표는 지역거점병원의 기능수행,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기능, 공공의료원 전문화를 통해 공공병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로 육성 발전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향상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포천병원은 1952년9월 미9군단 민사처병원으로 개설되어 1957년1월 경기도로 이관되었으며 1987년1월 지방공사 경기도포천의료원으로 전환되고 1998년10월 서울대학교 모자병원 협력체결, 1998.11 인턴 및 가정의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7월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전환했다.

포천병원은 병원장을 중심으로 진료부, QI실, 공공사업과, 관리과로 구성되었으며 원무팀, 총무팀, 약제과, 간호과, 응급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내과로 구성되어 있다.

병실현황은 특실 3, 1인실 6, 2인실 3, 4인

실 2, 5인실 25, 6인실 7, 8인실 6, ICU 1개소이며 병상은 특실 3, 1인실 6, 2인실 6, 4인실 8, 5인실 25, 6인실 42, 8인실 40, ICU 9개가 있다.

1천만원이상 주요 의료장비는 진단영상의학과에 유방압진단기, 원격조정 및 일반촬영기, MRI자기공명촬영기, MD-CT,플립도층촬영기, 심장 복부 초음파진단기를 보유하고 있고 산부인과는 디지털 초음파 진단기, 외과는 전자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중환자실에는 인공호흡기, 인과에는 백내장 수술기, 각막표본반경측정기, 치과에는 치과Unit, 마취과에는 마취기,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생화학 자동분석기, 혈액가스분석기, 형광면역경, 신경의과는 Air Drill System, 곰급실에는 EO GAS소독기, 수술실에는 관절경 및 척추경, 수술실 씨암, 무염등, 정형외과 수술대, 전통 유압식수술대, 고압증기멸균기, 드릴셋, 이비인후과에는 물혹제거수술기, 응급실에는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 포천병원 2008년 업무 추진

## 포천병원 경영정상화의 해 노조합동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역량·병원 조직 강화로 꿈과 희망의 경영비전 제시

포천병원은 경기도의 2008년도 병원 독립회계 운영지침과 책임경영체제 전환에 따른 권한 및 책임 위임에 따라 내실 있게 병원을 운영하여 확대된 권한에 부합되는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병원 조직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하여 조직간 화합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임직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영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우수의료진의 안정적 확보 및 정착방안 연구시행과 우수의료진의 해외연수 및 생활안정화 방안 추진, 진료과 수익 목표관리제와 실적급 연봉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노사가 상생하는 병원으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2008년을 포천병원 경영정상화의 해를 정해 병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노사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노조대표를 경영의 동반자로 위상을 강화하여 노사합동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방향에 따라 포천병원은 첫째, 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우수의료진의 안정적 공급과 정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목표액 144억9천759만18천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잠재성장 운영 또한 22억5천만원을 연간 수입목표액으로 삼아 노력하고 있다.

둘째 병원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정화조 폐쇄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심전도감시장치와 원격조정부 X-ray장치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셋째, 병원 위상 강화 방안으로 QI실 주관으로 원내 강사를 활용해 고객만족, 고객관리 및 MOT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포천병원 만들기 운동으로 매주 목요일 주간대청소를 정착시키고 각 부서별 담당구역

지정하여 청소 및 조경, 화단가꾸기, 환경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병원 운영위원회 구성, 산모교실 운영, CPR이카데미운영, 공공의료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운영위원회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천지역 기관장, 정치인, 기업체 및 사업체 대표 등 20~30명 이내로 구성하여 병원 운영현황 홍보, 병원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시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사업 확대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외국인근로자, 공단지역, 종교단체등을 대상으로 원내 무료출장 진료팀을 운영하고 포천 시민 무료건강 진단의 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사내 계시관 구축 운영, 소모임·동호회 활성화, 직원 화합행사, 원내 작업·동호회 활성화, 미술작품 전시회, 당노환자를 위한 올바른 식단, 상 차림 행사, 영화, 클래식 감상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책임경영체제 확립은 의료원과 병원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종합 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추구하고 경영합리화로 완전 경영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원내 작은 음악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연 2회 추진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영화감상회, 매월 넷째주에는 클래식 감상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섯째, 병원 홍보를 위해 홍보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안내 홍보물 및 안내판 정비,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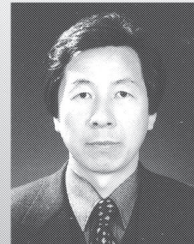
#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 영동식품

## 귀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 < 생산품목 >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칼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칼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13